

좋은 사람만이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다.

주현민(hyunmin.ju@kaist.ac.kr)

해밍의 영상을 보고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고찰해 보았다. 용기(courage), 추진력(drive), 몰입력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연구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아닐까 싶다. 좋은 사람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내재되어 있을 것이고 그 결과로 훌륭한 연구를 해낼 수 있는 연구자가 될 것이다.

고급 알고리즘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 자료구조 수업을 선수 과목으로 수강해야 하는 것처럼, 좋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 인성 등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야만 연구자가 될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 나는 세 번의 수능 끝에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다. 쉽게 말해, 삼수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좌절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였다. 아직 전반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력에 얽은 지식만을 가진 상황에서 표출하는 생각이기에, 미래의 내가 부끄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조심스럽다. 하지만 현재의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석사 1학년 학생으로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지금의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만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 활용한다면 좋은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매사에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문제에 대한 탐구가 필요한지 깨닫고 해당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지치지 않고 몰입하여 연구하고, 더 나아가 최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잡념을 최소화해야한다. 잡념이라는 것은 머리 및 마음 속의 시끄러운 노이즈와 같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잡념을 제어하여 몰입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는 좋은 연구로 이어질 것이다.

간혹 내가 좋은 사람에 대한 기준치가 지나치게 높아 좋은 연구자가 되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 접근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 또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람으로서의 현재 상태와 연구의 진행 과정을 꾸준히 피드백하며 발전해나간다면 진정한 의미의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